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결과보고서

사업기관	한국어문학연구소		
사업명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업기간	2020.3.1. ~2021.1.31.	사업비	

차 례

2020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 2) 실제추진 현황
 - (DB 구축) 추진 결과
 - (경의선 소설집-단행본) 추진 결과
 - (경의선 산문집-단행본) 추진 결과
-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DB 구축
 - 경의선 소설집 출판(2월 예정)
 - 경의선 산문집 단행본 출판(2월 예정)
 - 관련분야 기여도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3. 자체평가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한국어문학연구소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 기관명: 한국어문학연구소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세계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인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재확인한다.
- 경의선 철도 노선을 따라 서울, 개성, 황주, 신의주 등에 이르는 한반도 주요 지역을 근대 문인들의 산문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적 관점을 토대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한국현대문학 연구의 장을 형성한다.
- 탈북 문인의 남한 문학장애의 접촉을 적극 도모하고, 대중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창작과 학술 분야에서 의 접근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 목적

- 통일의 사회적 의미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 확산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연속적으로 탈북 문학인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문학 작품들, 북한 지역과 관련한 남북한 문인들의 작품 및 다양한 서지 자료들을 발굴, 소개하며 정리하고 이를 아카이브화 하여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게 하고, 우리 사회 전

체에는 통일 이후의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론 장을 마련해왔다.

- 이에 2020년도 사업 역시 앞선 사업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일’이라는 키워드 하에 북한 관련 한국 현대문학 연구 자료를 확보해내는 것은 물론,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 특히, 일제강점기 및 동시대 문학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집을 출간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세계사적 의미와 그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의 의미를 재확인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의 인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데올로기 중심의 북한 연구 담론장의 방향을 지역학적 관점으로 전환

-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문학 연구를 정책적 연구가 아니라 지역학적 연구로 전환한다.
- 평양이나 정주, 원산 등과 같이 북한 관련 문학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들이 어떤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어떠한 형태로 문학 및 문학인들과 관계 맺는가를 분석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삼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구체적 결과물을 획득하고자 한다.

- 문학을 매개로 북한 지역에 대한 대중적 이해 촉진 및 확산

-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철도’를 테마로 하여, 북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기행문 등을 통해 북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발하고, 분단 이전의 산문을 통해 북한지역을 살펴봄으로써, 단절적인 인식을 극복한다.

□ 사업내용

○ 정의선 노선을 따라 남북 주요 지역의 근대 산문 자료 DB구축

- 『개벽』, 『삼천리』, 『문장』,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에 게재된 북한 지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화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한문학의 지역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의선 노선의 북한 주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창작집 발간

- 탈북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 북한 지역의 사회·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 수록한다. 남북한 작가의 작품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남북의 문학적 교류를 이어간다.



그림 1 경의선 노선과 주요 지역

○ ‘경의선 문학기행’ 테마 산문집 발간

- 집적된 DB를 바탕으로 ‘경의선’을 테마로 한 산문 작품집을 구성한다. 문학성이 높은 작품을 선별하여 현대어 번역 작업을 수행한다. 대중들이 기차역을 따라 북한 지역을 탐사할 수 있도록 산문집을 구성, 출판한다.

□ 기대효과

- 사회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연구를 통하여 북한 지역을 한반도의 일부로 재인식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적·경제적 차원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 사회적·경제적·제도적·환경적 측면에서, 북한 지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새롭게 다가올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이바지한다. 나아가 1910~40년대 식민지 조선인의 철도 기행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세계사적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학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지역학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학술계 전반에 새로운 담론 장을 생성하는 효과를 지닌다.
 - 북한 노동당의 정책이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로 살펴보는 기존의 북한문학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문학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현대문학 연구/담론장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 나아가 본 연구는 문학 연구적 기반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과학·자연과학·예술 분야에서도 통일 관련 담론 장을 함께 형성해나갈 수 있다.

○ 문학적 측면에서, 세계문학으로서 ‘지역학으로서의 북한’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한국문학 전반의 위상을 향상시킨다.

- 북한 지역학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문학 연구의 장의 창출함으로써 학문 공동체 전반을 확장시킬 수 있다. 체제 선전 위주의 북한 현황 및 문학예술 등에 대한 비판을 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하여 향후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20.04~ 20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과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공동 창작 소설집’ 출간을 위해 작가들과의 소통 및 기획 회의 - 일제 강점기 및 해방기에 활동하였던 작가들이 쓴 산문 중 경의선과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여 ‘산문집’에 게재할 텍스트 선별
2020.05~ 20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창작 소설집’ 참여 작가 5인에게 원고 청탁 후 완성된 작품 취합 -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문집’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제, 내용, 목차 확정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검토
20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자료 정리 - ‘공동 창작 소설집’, ‘산문집’ 출간 작업 중간 점검 - 북디자인 전문가에게 본 사업의 기획의도를 설명한 후, 결과물 각각의 디자인 의뢰
2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창작 소설집’에 들어갈 작품 검토 및 발문 작성

	- '산문집'에 들어갈 텍스트들 분석 및 분류, 관련 자료 추가 확보
2021.1	- '공동 창작 소설집'에 게재될 작품들 교정 교열 및 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 - '산문집'에 게재될 작품 선별 및 현대어로 번역, 한문학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
2021.02	『경의선 산문집』 (예옥, 2021) 출간 예정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예옥, 2021) 출간 예정

□ 참여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방민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한국어문학연구소	02) 880-9095		rady@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rady@snu.ac.kr
이지은	국어국문학과	강사	dlwldmssla@hanmail.net
김민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dustymonji@snu.ac.kr

2) 실제추진 현황

□ (DB 구축) 추진 결과

- 경의선 산문 자료 조사 작업 결과, 기행문, 기사 등 총 117편의 자료를 선별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였다.

- 『경의선 산문집』 수록을 위한 사진 자료 조사 작업 결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서 북한 지역학 및 경의선 철도와 관련된 사진 자료 총 47편을 선별하고, 향후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였다.

□ (경의선 소설집-단행본) 추진 결과

- 북한 출신의 탈북작가 5인이 함께 모여 『신의주에서 개성까지』(도서출판 ‘예옥’, 2021년 2월 발간)를 발간한다. 장해성, 이지명, 도명학, 김정애, 설송아 등 5인의 소설, 총 5편을 수록하였다. 본 보조연구원 김민지의 해설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
- 『신의주에서 개성까지』에는 경의선 노선 주변의 북한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 북한의 실상을 다루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목	저자
1	보내지 못한 편지	장해성
2	가짜인간	이지명
3	거미줄 철도	도명학
4	기나긴 하루	김정애
5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	설송아
6	‘남성성’과 녹아버린 냉동 물질들	김민지

- 2월 발간 예정인 『신의주에서 개성까지』의 결과물은, 2020년 한국어문학연구소 통일기반구축사업의 대표 실적으로 현재 편집본이 완성되었다.

□ (경의선 산문집-단행본) 추진 결과

- 경의선 산문 자료 조사 작업과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근대초기부터 식민지시기까지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고 북한의 지역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를 엄선하였다. 또, 대중적 확산을 위해 읽기 쉬운 현대어로 윤문하였으며, 적절한 사진 자료를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경원선 산문집』(예옥, 2021년 2월 출간 예정)의 원고를 완성하였다. 현재 출판사의 편집 단계이며 2월 출간 예정이다.
- 식민지 시기 문학·역사·사상·민족 운동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문인의 글을 엄선함으로써, 남북한 지역학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인문교양도서로서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 엄선된 산문뿐 아니라 당대 사회상과 풍속을 알 수 있는 짧은 신문 기사를 채

터별로 배치함으로써 대중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였다.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식민지의 일상사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 『경원선 소설집』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I. 경성에서 개성까지

-용산·신촌·수색·능곡·일산·금촌·문산·장단·봉동·개성·토성·여현

임학수, 「경성과 나」, 『춘추』, 1941.3.

김일엽, 「여인과 서울」, 『조선일보』, 1932.1.5.

김동인, 「경성 전차」, 『매일신보』, 1937.12.28.

김도태, 「紙上修學旅行, 京義線篇」(1)~(7). 『동아일보』, 1940.6.23~8.11.

최정희, 「만월대와 선죽교」, 『반도산하』, 삼천리사, 1944.

토해선(토성~해주)

박태원, 「해서기유」, 『조선일보』, 1938.2.15.

장만영, 「천향통신- 백천은천에서」, 『조선일보』, 1940.6.28~29.

II. 황해도 일람

-계정·금교·한포·평산·남천·물개·신막·서흥·문무리·흥수·청계·마동·신봉산·사리원·계동·침촌·황해황주·흑교

이상, 「첫번째 방랑」, 『문학사상』, 1976년 7월

염상진, 「서선(西鮮)을 돌아본 인상」, 『개벽』, 1924년 11월.

박달성, 「황해도에서 얻은 잡동사니」, 『개벽』, 1925년 6월.

장연선長淵線(사리원~장연)

서항석, 「비경탐승」. 『동아일보』, 1938.8.9~12.

구자균, 「민요와 여인- 황해도 순력기」, 『조선일보』, 1935.8.11~14

강경애, 「기억에 남은 몽금포」, 『여성』, 1937년 8월.

III. 서경과 대동강

-중화·역포·대동강·평양·서평양·서포·간리·순안·석암·어파·숙천·만성·대교·신안주

김억, 「사도(四道) 민요기행」, 『삼천리』, 1938.10.

김동인, 「대동강」, 『매일신보』, 1930.9.6.

최명익, 「七月의西京 - 매생이·魚粥의野趣」, 『여성』, 1940.7.

이효석, 「유경식보(柳京食譜)」, 『여성』, 1939년 6월.

김남천, 「뒷골목 평양잡기첩」, 『조선일보』, 1938.5.28~6.4.

평양탄광선(대동강~승호리~강동)

김계성, 「건축원료의 석회광 평남의 대부고(大富庫)」, 『동아일보』, 1926.12.25.

이광수, 「강동에 단군릉을 찾아서」, 『수필과 시가』, 영창서관, 1939.

IV.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맹중리·영미·운전·고읍·정주·하단·곽산·노하·선천·동림·차련관·남시·양책·피현·백마·석하·남신의주·신의주

노자영, 「방랑의 하로(夏路)」(8)~(10), 『동아일보』, 1921.8.5~8.8.

김준연, 「부흥의 의기충천한 정주 오산학교를 보고」, 『동아일보』, 1935.10.4~8.

백석, 「소월과 조선생」, 『조선일보』, 1939.5.1.

묘향산인, 「격변 중에 있는 평북지방을 잠깐보고」, 『개벽』, 1921년 6월.

김억, 「신의주 정취」, 『삼천리』, 1932.3.

부록: 국경너머

나혜석, 「구미 시찰기」(1)~(3), 『동아일보』, 1930.4.3~5.

손기정, 「백림원정기」, 『삼천리』 제9권 제4호, 1937.5.1.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DB 구축

-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진행으로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재조명하고, 풍속사·문화사적 의미가 있는 글들을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총 117편의 텍스트를 목록화하였다.
- 북한 지역학적 관점에서 기행 산문의 DB는 시도되지 않은 작업이므로, 향후 문학 연구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경의선 산문’이라는 산문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북한 문학 연구뿐 아니라 철도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역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는 흩어져 있던 유물이나 고문헌 자료를 선별함으로써 향후 2차 저작물을 생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경의선 소설집 출판(2월 예정)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후원으로 2015년 『국경을 넘는 그림자』와 2016년 『금덩이 이야기』, 2017년 『꼬리 없는 소』, 2018년 『단군릉 이야기』 등 ‘남북작가 공동 소설집’을 출간해 왔으며, 지난 2020년엔 경원선을 테마로 『원산에서 철원까지』를 출간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탈북 작가의 소설을 통한 현대 북한의 모습을 진솔하게 알리고,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5번째로 『신의주에서 개성까지』를 출간함으로써 탈북 작가들의 문학 창작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이 문학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2020년 성과인 소설집 『신의주에서 개성까지』에서는 경의선 주변의 북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선보여 오늘날 북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수록된 소설은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식 등을 선보이고 있어 탈북 문학 작품의 문제의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경의선 산문집 단행본 출판(2월 예정)

- 경의선 관련 산문을 엄선하여 현대어로 번역한 대중교양 서적을 완성하였다. 이는 2019년 경원선 테마 산문집과 연속적인 작업으로, ‘철도 여행’이라는 대중적인 테마를 통해 남북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철도 여행 산문을 통해 한반도를 횡단하는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남북한 한반도의 연속성을 재인식한다.
- 식민지 시기 역사적·문화적·사상적으로 중요한 문인들의 글을 선별함으로써 북한 지역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 한반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지역마다의 풍속과 현실이 드러나는 글을 선별함으로써 남북한 주요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관련분야 기여도

- 철도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학에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이데올로기 편향적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문학 연구의 전환을 꾀하며, 나아가 북한학 담론 장의 활성화와 논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 철도, 건축, 문화, 사회 등 융복합 학문 연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철도는 제국과 식민지의 첨예한 투쟁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근대 산물이었다. 따라서 경원선·경의선을 중심으로한 북한 지역학 연구는 문학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2. 예산

3. 자체평가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한국문학 전반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한국현대문학계에 ‘북한학’의 방향 전환을 제안하고 남북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
- 탈북 작가들의 창작을 도모하고 이들 작품을 소개하는 작업은 문학의 진정성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며, 남북 분단의 현실을 재인식하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경의선 여행을 테마로 한 산문집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남북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성

- 경의선 산문 DB와 사진자료 DB는 향후 북한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2차 저작물 생산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2015년 이래 매년 통일기반구축사업의 결과물로 출간되고 있는 탈북 작가의 소설집을 통해 오늘날 북한 주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사업의 지속성은 대중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 사업의 영향력

- ‘경의선’은 분단된 땅을 연결하는 의미를 지닌 철로이기 때문에 ‘경의선’을 다루는 과거와 현재의 문학 텍스트를 정리하고 분석한 본 사업은 ‘연결’과 ‘통일’을 향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최근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경의선은 남쪽으로는 경부선,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와 만주 철도와 연결되는 한반도 종관철도이다. 경의선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으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철도로서, 경의선을 통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수기들은 한반도의 과거이자 미래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의 세계사적·지정학적 의미를 재인식하는 주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문학 연구자들은 본 사업에서 구축해 놓은 해당 DB 자료를 열람 및 활용하여 탈북 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학문의 장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2016~202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탈북 문학 관련 창작 증진에 기여하고 단행본 출판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를 정착시켜, 남북한 공동 창작 소설집을 연례화함으로써 탈북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안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하고, 남한 문인들의 경우에도 탈북 및 탈북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도록 할 수 있다.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탈북 문인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많은 상태이다. 그들을 널리 소개하고, 탈북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경의선 산문 및 사진자료를 선별하고 DB를 구축을 해놓은 만큼,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당 자료에 대하여 문학 및 관련 학문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대중들이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매년 감소해온 예산으로 인해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따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타전공, 타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가 필요하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본 사업이 제작해온 자료들을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장기간 휴관하였으며, 이용에 큰 제한이 있었다. 자료 수집과 DB구축을 주로 하는 과제를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준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

의, 참여 작가 집담회, 출판사 접촉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단행본 출간이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경원선’과 ‘경의선’을 중심으로 진행한 앞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의 본격적인 학술·담론의 장 형성
- 북한 지역학 연구의 심화
 - 2016년~2020년 진행한 사업이 ‘제1기’에 해당한다면, 2021년부터 제 2기 사업의 진행.
 - ‘제2기’ 사업의 경우, 2021년 사업은 첫 번째 발판으로 황해도(특히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후 2022년 사업은 평양, 2023년 사업은 정주, 2024년 사업은 원산 및 함흥, 2025년 사업은 개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한다.
- ‘경원선’, ‘경의선’, ‘탈북 문학’ 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북한의 지역학적 의미를 재고함으로써 학계에 새로운 논의의 방향을 제안
- ‘통일’과 ‘평화’를 중심으로 인접학문과의 융복합 연구의 장 마련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경의선 테마 소설집 단행본 출판(예정)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 경의선 테마 산문집 단행본 출판(예정) 『경의선 산문집』
- 소설집, 산문집, DB 구축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체실적을 첨부 파일(엑셀)에 기입하였으며, 전체 실적 사항들을 모두 각각의 폴더에 담아 압축하여 파일로 첨부하였다.
- 첨부 파일(엑셀) 참조